

일+휴식... 전남 지자체 워케이션 '열풍'

여수, 주거·업무·체험공간 구축...한꺼번에 동료 20여명도 가능
순천, 정원워케이션 인기...곡성, 심청한옥마을에 '기업형 시스템'

#최근 직장인 A씨는 부인을 비롯해 2명의 자녀와 함께 휴가로 보내고, 처리해야 할 회사 일도 있어 순천 '정원워케이션'을 예약했다. 특히 휴가 중 예정된 업무회의를 워케이션 센터 내 미팅 룸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그 시간에 가족은 센터에서 보드게임과 스포츠 장비를 대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휴가 후 A씨는 매우 만족한다는 후기를 보냈으며, 내년 예약 여부까지 문의했다.

전국적으로 휴식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의 독자적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기업과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표적인 전남 지자체로는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이 꼽힌다.

올해 이들 지자체만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와 예약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내년에 참여할 기업이 이미 결정될 정도로 인기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직장인의 근무 형태가 새롭게 바뀌기도 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는 물론 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4일 전남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들은 직장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관광과 업무를 묶은 새로운 '로컬리즘(localism)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은 워케이션 선반 경쟁에 다소 밀린 듯 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선호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주(31.8%)·강원(19.5%)·서울(18.8%)·부산(14.2%)·경기(6.2%) 지역을 선호해 광주·전남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은 '전국 3대 여름 휴가지', '50대 이상 관광소비 비중 전국 1위',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증가율 전국 1위' 등의 경쟁력 있는 관광지임을 강조하며 직장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주력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워케이션 형태로 '업무능력 향상'(47.35%)과 '휴식'(47.25%)을 꼽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자치단체별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것이다.

여수시의 경우 국제해양박람회를 유치했던 박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회사 업무도 보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다.

합회장 내 워케이션 주거·업무·체험 공간 등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로 성장한 여수시는 바다와 도심의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장점 덕분에 도심·관광형 워케이션으로 차별화한 케이스다. 도심의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바다가 눈에 들어오는 워케이션센터(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일하면서 일과 뒤에는 30분~1시간 거리에 있는 섬, 농촌 등으로 옮겨 자유로운 여행·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게 강점이다. 특히 최근 여수가 '마이스(MICE)' 도시로 떠오르면서 워케이션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여수시는 1356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했으며, 올해도 13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워케이션센터는 한꺼번에 20여명이 머무를 수 있어 '동료와 함께' 하는 워케이션도 가능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내 관광지로 선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번에는 '정원 워케이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용인 에버랜드와 서울 롯데월드·경복궁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국내 유일의 정원워케이션을 운영하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곡성군은 심청한옥마을에서 기업 위주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형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워케이션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의 워케이션은 이들 3곳 지자체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풍부한 해양자원과 청정지역의 특징을 감안해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린 차세대 워케이션 발굴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전국의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마을이 미술관”...양림골목비엔날레 개막 제3회 양림골목비엔날레가 4일 광주 남구 양림동 미술거리 일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독일과 폴란드 파빌리온에 참여한 작가들이 양림동 이장우 가옥을 둘러보고 있다. > 관련기사 1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 인상 의무가입 연령 59→64세 상향 논의

정부 '더 내는 개혁안' 제시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나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관련기사 2·4면>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를 예로 들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7400원(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1800원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11만4400원을 고스란히 더 부담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으로, 중장년층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특히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향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정년 연장 등과 묶어 추진한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2026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미화원 안전과 수거율 감소 '최소차 딜레마' >6면

김도영 단순 타박상...결장 없이 경기 나서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캠핑 성지' 충북 충주 >22면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